

河東鎬 소장 고문헌 자료의 성격과 가치*

The Character and Value of the Ha Dong-ho Collection

유 춘 동 (Yoo, Choon D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
| 2. 하동호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개관 | 3.1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현황 |
| 2.1 고문헌 자료의 현황, 분류, 특징 | 3.2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가치 |
| 2.2 고문헌 자료의 입수 경로와 장서의 운영 | 4. 마무리와 과제 |
| | <참고문헌> |

< 초 록 >

한국 근현대문학(近現代文學) 분야 서지(書誌) 연구의 독보적 존재였던 하동호(河東鎬) 교수는 생전에 수집했던 한국문학 전적(典籍) 및 관련 자료, 5만 5천여 점을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했다. 기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임시 목록을 보면 한국 고문헌 자료는 대략 2,752책이다. 이 연구는 하동호 교수 소장본을 조사하고 그 자료적 특징과 가치를 살펴본 것이다.

하동호 소장 고문헌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방각본과 같은 상업출판물이나 출판 및 유통 관계 자료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친 근대 생활문화사(生活文化史)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도 많다. 이것은 하동호 교수 생전의 수집 경향과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어학과 근현대문학, 그리고 신소설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자신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문헌을 수집한 것이다.

하동호 교수가 수집했던 고소설은 300여 종이다. 그는 고소설을 상당히 다채롭게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도 수집한 고소설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글 필사본의 경우, 필사 시기가 대부분 융희(隆熙) 연간이나 대정(大正) 연간이다. 둘째, 방각본 소설의 경우, 대부분 경판이나 완판 방각본 소설이며, 안성판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셋째, 세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필사한 신소설과 신작 고소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要語: 하동호, 고문헌, 근대서지, 근대서지 개척자, 국립한국문학관

*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국립한국문학관 고전문헌자료 소장 실태조사 및 수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부 내용을 근대서지학회에서 발표하였고 이후 이를 다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sechaek@hanmail.net)

투고일: 2020년 5월 15일 최초심사일: 2020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0일
서지학연구, 제82집, 101-120,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101>

<ABSTRACT>

Professor Ha Dong-ho, who was a leading figure in the bibliograph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donated 55,000 pieces of Korean literature to the National Literature Museum. According to a temporary list based on donated materials, there are approximately 2,752 Korean ancient documents.

The biggest feature of Ha Dong-ho's ancient documents is that there are many commercial publications such as Banggak copies and materials related to publishing and distribution. In addition, there are many materials to look at the history of modern life and culture that spanned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shows the collection trends and aspects of Professor Ha Dong-ho's life. While intensively collecting materials in the fields of Korean language,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and new novels, he collected ancient texts that he thought were important.

Professor Ha Dong-ho collected more than 300 kinds of accusations. He collected the rumors of the complaint in considerable variety. The accusations he collected can identify several features. First, in the case of Korean manuscripts, most of the transcription periods are in the Junghui Year or Daejeong Year. Second, in the case of Banggakbon novels, most of them are Gyeongpan or Wanpan Banggakbon novels, and Anseong version is hard to find. Third, there are three books. Fourth,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ncludes a new novel written in manuscript and some rumors of a new novel.

Key words: Ha Dong-ho,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Modern Bibliography,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1. 서론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 근현대문학(近/現代文學) 분야 서지(書誌) 연구의 독보적 존재였던¹⁾ 하동호(河東鎬) 교수(1930~1994)가 생전에 수집했던 ‘한국문학 전적(典籍) 및 관련 자료’ 5만 5천여 점을 기증받았다. 이 전적들은 현재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글은 그 중에서 고문헌과 한국 고전문학 자료만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1>
하동호 교수의 생전 모습

하동호 교수의 연구는 근대문학(신소설 포함), 현대문학, 국어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그가 수집했던 자료는 대부분은 근/현대문학에 국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고문헌과 한국 고전문학 자료도 자신의 관심 수집 대상에 포함시켜 폭넓게 전적을 수집했다.

하동호 교수는 1982년에 안춘근, 여승구 등과 함께 ‘한국고서동우회(韓國古書同友會)’ 창립에 관여했고, 초대 부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차례 특별전을 통해서 고문헌 자료와 고전문학 자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가 수집했던 자료는 일부만 알려져 있고,²⁾ 아직까지 학계에 온전한 목록조차 제시된 적이 없다. 하동호 교수의 장서는 부인 조옥선 여사가 지난 25년 동안 보관해왔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이 확정되면서 조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문체부 측에서는 하동호 교수의 유가족들과 함께 임시 목록을 작성했다. 현재 하동호 교수 기증 장서는 국립 세종도서관 수장고로 옮겨와 보관하고 있다.

아직 목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글에서 살펴볼 고문헌 자료와 고전문학 관련 자료의 소개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실사(實査)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자료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하동호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개관

2.1 고문헌 자료의 현황, 분류, 특징

2018년 하동호 교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한 자료는 약 5만 5천여 점이다. 이 자료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자료이며, 유형별로는 보자면 근/현대 문학도서(잡지 포함),

1) 정진석, 『책 잡지 신문 자료의 수호자』 (서울: 소명출판, 2015).

2) 조희웅의 책을 보면 ‘河東鎬[藏目]’로 하동호 소장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생전에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1999).

고전적, 영인본, 복제본, 고지도(古地圖), 만화, 어린이용 도서(동화책)까지 다양한 전적이 존재한다.

1차로 작성된 임시 목록을 보면 한국 고문헌 자료는 모두 2,752책이다.³⁾ 고문헌의 수량은 하동호 기증 자료 전체의 약 5% 정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하동호 교수 생전의 수집 경향과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어학과 근/현대문학, 그리고 신소설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자신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문헌을 수집한 것이다.

현재 작성된 목록은 단기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밀한 보완과 보정(補正)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근대 문학자료, 일본 및 중국 전적이 포함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1950년대 이후의 영인본 자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과 1차 목록과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동호 소장 자료 중에서 고문헌의 총량은 대략 2,200여 책으로 추산된다.⁴⁾ 이 자료를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중요한 자료만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1 경부(經部)

『논어언해(論語諺解)』, 『맹자언해(孟子諺解)』, 『대학언해(大學諺解)』, 『중용언해(中庸諺解)』, 『소학언해(小學諺解)』, 『규장전운(奎章全韻)』, 『전운옥편(全韻玉篇)』, 『유합(類合)』, 『천자문(千字文)』,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비롯한 다수의 경부(經部) 해당 전적.

2.1.2 사부(史部)

『사기영선(史記英選)』, 『징비록(懲毖錄)』, 『국조고사(國朝故事)』, 『통감(通鑑)』, 『운음(綸音)』, 『세조조정난공신회맹록(世祖朝政亂功臣會盟錄)』, 『연행록(燕行錄)』 및 다수의 실기류(實記類), 족보류(族譜類), 연보류(年譜類)를 비롯한 다수의 사부(史部) 해당 전적.

2.1.3 자부(子部)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잡동산이(雜同散異)』, 『동의보감(東醫寶鑑)』, 『백미고사(白眉故事)』, 『구황촬요(救荒撮要)』를 비롯한 다수의 자부(子部) 해당 전적.

2.1.4 집부(集部)

2.1.4.1 문집(文集) 및 시문집(詩文集)

『매월당집(梅月堂集)』, 『읍취현유고(挹翠軒遺稿)』, 『서하집(西河集)』, 『농암집(壘巖集)』, 『백사집

3) 참고로 하동호 교수 기증본에는 서양서, 일본서, 중국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4) 이 총량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고문헌 자료가 근현대 문학 자료에 상당수 포함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체계적인 분리,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白沙集』, 『석북집(石北集)』, 『점필재집(佔畢齋集)』 『남명선생문집(南冥先生文集)』,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 『노사집(蘆沙集)』, 『난설헌시집(蘭雪軒詩集)』, 『당시류(唐詩類)』, 『기아(箕雅)』, 『두시언해(杜詩諺解)』 및 다수의 문집(文集)과 시문집(詩文集).

2.1.4.2 소설(小說): 한문/한글 고소설

『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 『남정기(南征記)』, 『홍백화전(紅白花傳)』, 『정향전(丁香傳)』, 『구운몽(九雲夢)』, 『홍길동전(洪吉童傳)』, 『춘향전(春香傳)』, 『심청전(沈淸傳)』, 『조웅전(趙雄傳)』, 『유충렬전(柳忠烈傳)』, 『임진록(壬辰錄)』 등을 비롯한 다수의 고소설(古小說).

2.1.4.3 시가(詩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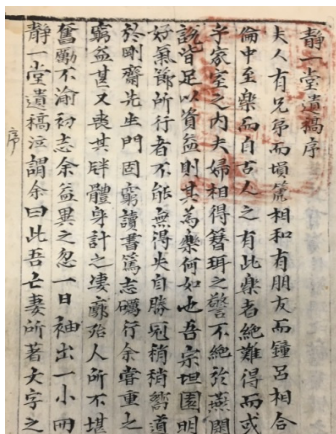
『일동장유가』, 『팔도가(八道歌)』, 『잡가(雜歌)』, 『약성가(藥性歌)』, 『베틀가』, 『연행가(燕行歌)』,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 『한양가(漢陽歌)』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시가(詩歌).

2.1.4.4 지리(地理)

<고운사(孤雲寺)지도>, <송광사지도(松廣寺地圖)>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지리류 자료.

2.1.4.5 기타

구활자본 고소설, 일제강점기 고소설의 검열본(檢閱本) 자료, 경성조선인서적상조합정관(京城朝鮮人書籍商組合定款), 수원지역 상인조합 인감(印鑑)과 같은 다수의 문학 유통 자료 및 생활사 자료.



<사진 2> 필사본 정일당유고



<사진 3> 고운사 지도



<사진 4> 송광사 지도

위에서 제시한 하동호 교수의 기증 자료는 각 영역마다 특징이 있다. 먼저, 경부(經部)의 경우, ‘언해(諺解)’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에서도 『소학언해(小學諺解)』는 종종 때 간행된 원간본(原刊本) 계열 이후 교정청에서 간행된 계열, 방각본 계열로 다양하다. 아울러 필사본도 있다. 그리고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규장전운(奎章全韻)』, 『진운옥편(全韻玉篇)』, 『유합(類合)』, 『천자문(千字文)』, 『상례비요(喪禮備要)』 등은 대부분 방각본(坊刻本)이란 점이 특징이다. 타 기관이나 개인 소장본은 주로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것이 많은데, 하동호 소장본은 방각본인 경관이나 완판이면서, 각 지역의 방각업소에서 제작된 자료들을 수집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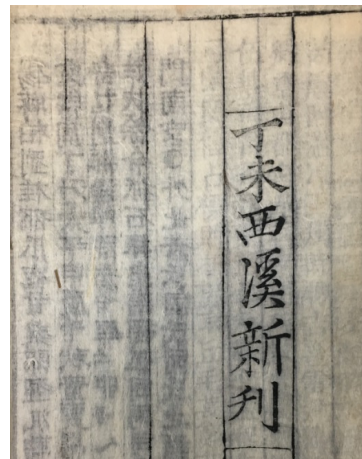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부(史部)의 경우, 전적에 장서인(藏書印)인이 여럿 보이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장서인이다. 이 책은 조선중기 문인이면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했던 오시수(吳始壽, 1632~1681)의 장서(藏書)이다.⁵⁾

그 밖에도 사부의 『열성어제(列聖御製)』, 『징비록(懲毖錄)』, 『사기영선(史記英選)』을 비롯한 많은 전적에서 조선시대 주요 문인들의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장서인에 의거하여 책의 원 소장자, 자료의 간행 및 유전(流轉)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부(子部)는 『백미고사(白眉故事)』와 『구황촬요(救荒撮要)』처럼 대부분이 방각본(坊刻本)이다. 자부의 자료 또한 경관이나 완판 등의 방각업소에서 제작된 자료들을 수집했다.



<사진 5> 오시수의 장서인



<사진 6> 방각본의 간기

하동호 교수 소장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집부(集部)의 문집(文集)과 시문집(詩文集), 고소설(古小說), 시가(詩歌)이다. 문집과 시문집의 경우에는 간본(刊本)도 많지만 대다수는 필사본이다. 이 중에는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 『난설헌시집(蘭雪軒詩集)』은 원고본(原稿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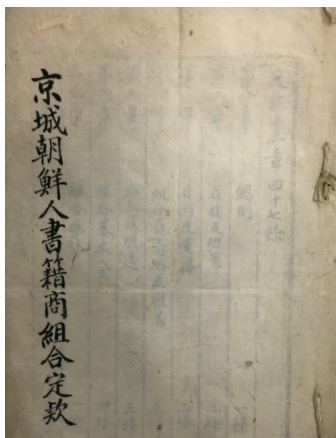
5) 장서인은 “戊子司馬 丙申登龍, 吳始壽, 德而”이다. 이 관독은 박철상, 김영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계열로 보이는 것들도 많다. 그리고 문집은 곽수강(郭壽岡)의 문집인 『매헌선생문집(梅軒先生文集)』처럼 현존하는 수량이 많지 않은 희귀본이나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문인 석인본(石印本) 문집이 많다. 앞으로 이 자료들은 타 기관 소장 자료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가의 경우, 『약성가(藥性歌)』, 『한양가(漢陽歌)』, 『잡가(雜歌)』처럼 많이 알려진 자료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연화자로 인쇄된 활판본 자료들도 많다. 지도나 지지(地誌) 자료 중에는 <고운사(孤雲寺) 지도>와 <송광사(松廣寺) 지도>가 있다. 자료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면밀한 고찰을 통해 제작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자료이지만 고문헌의 유통과 실상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다수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소설/고전시가의 검열본(檢閱本) 자료와 <경성조선인서적상조합정관(京城朝鮮人書籍商組合定款)>, 그리고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이보상의 고소설 개작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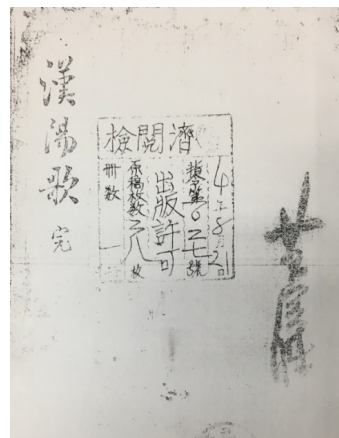
기존에 알려진 구활자본 소설 『오자서전』의 검열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과 납본한 것을 재검열한 것이 있다.⁶⁾ 『한양가』의 경우에는 검열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하동호 교수 기증 자료를 통해서 두 작품의 검열 과정과 자세한 양상을 논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 경성 서적상 조합정관



<사진 8> 오자서전 검열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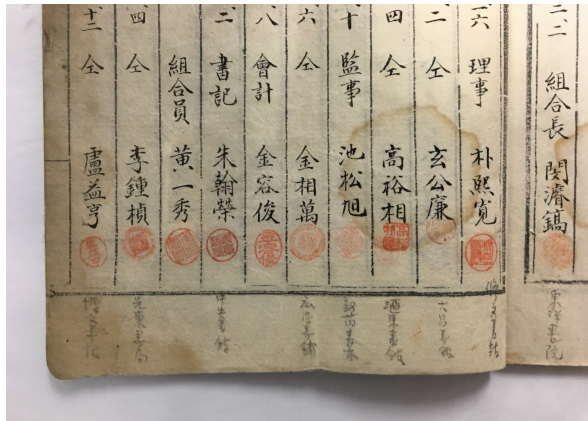
<사진 9> 한양가 검열 원고

<경성조선인서적상조합정관(京城朝鮮人書籍商組合定款)>은 하동호 교수 재경오(再庚午) 기념 논총⁷⁾에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이 자료는 1912년 4월 20일 작성된 것으로, 경성(京城) 지역 내 조선인 출판업자들 간의 조합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운영 실태, 출판 과정에서의 협력 사항, 서적상 조합에 참여했던 출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사진처럼 정관에

6) 유춘동,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75집(한국서지학회, 2018. 9), 179-192.

7)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하동호교수 재경오기념논총』(서울: 탑출판사, 1990).

따라 협약할 것을 약속하고, 대표자의 인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출판사 운영자가 모두 날인했다.



<사진 10> 조합원의 인장(印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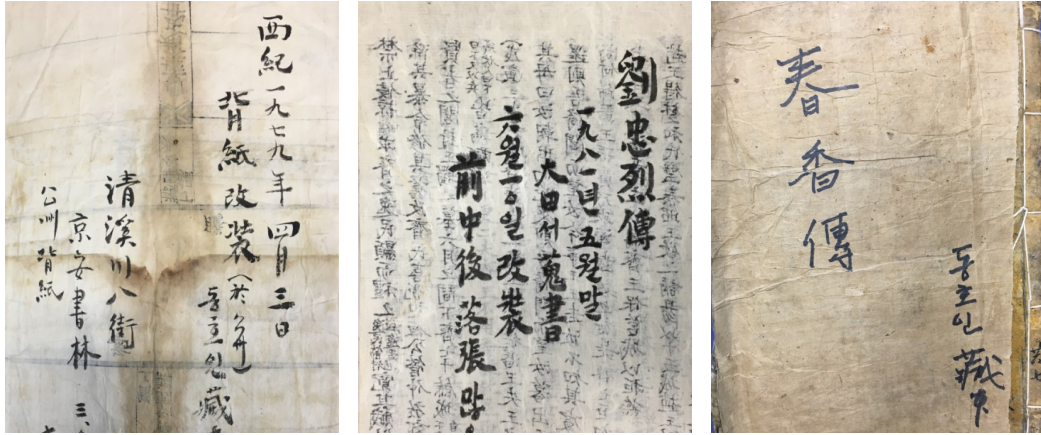
이상 하동호 소장 자료 전체를 개관해 보았다. 고문헌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방각본과 같은 상업출판물이나 출판 및 유통 관계 자료가 많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료 중에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친, 근대 생활문화사(生活文化史)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도 많다.

2.2 고문헌 자료의 입수 경로와 장서의 운영

하동호 교수의 기증 자료를 보면, 각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매 책마다 구입의 경로, 가격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사진처럼 해두었다. 이 자료를 통해 고문헌은 주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청계천 8가에 있었던 경안서림(京安書林)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 일대의 고서점지에서 구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할자본 소설의 경우에는 역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광화문이나 효자동 근처에 있었던 대본점(貸本店)을 통해서 입수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고전적과 자료들을 하동호 교수는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 장정(裝幀)을 했다. 원 표지를 없애고,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종이(행정봉투, 기타 학교에서 교원에게 제공했던 종이) 등을 활용하여 개장(改裝)했다. 이렇게 원 책을 개장한 것은 주로 소설류에 집중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서는 1년에 두 차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지인(知人)들에게 대여해주고 특정한 날에 회수했다.⁸⁾

8) 하동호 교수가 별도로 인쇄해 놓은 종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가 아뢰옵니다. 인사 말씀은 줄이웁고 한해 두 차례 있는 개인 소장본의 정리 기간이 다가왔기에 귀하에게 빌려드린 다음 적은 책을 다음 날짜까지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책이름 2.반환기간. 하동호 드림.”



<사진 11> 고전적의 입수경로1 <사진 12> 고전적의 입수경로2 <사진 13> 하동호 소장본의 표지

3.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3.1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현황

하동호 교수가 수집한 고소설은 대략 300여 책이다. 이 자료는 표기를 기준으로 국문(한글), 한문, 국한문혼용으로 나눌 수 있고, 형태상으로는 필사본, 세책본, 방각본, 구활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품의 내용이나 유형을 기준으로는 국문 대장편소설, 방각본소설(경판, 완판 포함), 세책본, 중국/번역 고소설, 구활자본/신작 고소설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3.1.1 국문 대장편(大長篇)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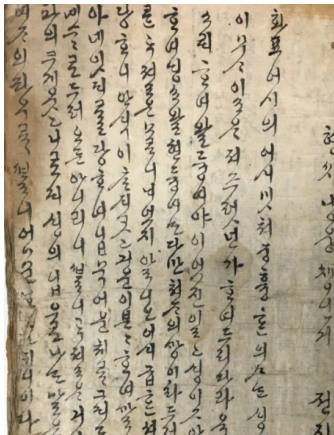
국문 대장편 소설은 대부분 한글 필사본이다. 원래 거질이었던 것이지만, 하동호 소장본은 대부분 낙질본이다. 작품을 보면 『창란호연록』 4종 5책, 『옥환기봉』 1책, 『현씨양옹쌍린기』 3종 5책, 『쌍봉기연록』 1책, 『화씨충효록』 1책이 있다.

3.1.2 방각본(坊刻本)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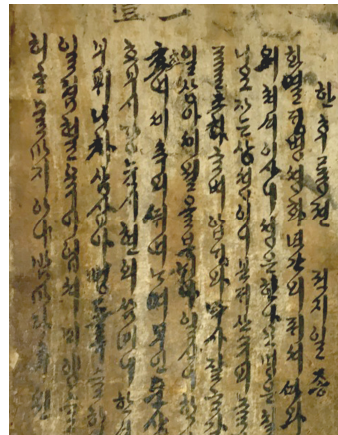
방각본 소설은 경판(京板)과 완판(完板)만 존재한다. 작품을 보면 경판 『삼국지』 2책, 완판 『삼국지(권3/4)』 1책, 완판 『소대성전』 2종 2책, 완판 『소옹전』 2종 2책, 경판 『금방울전』 1책, 경판 『황운전』 1책, 완판 『유충렬전』 2책, 경판 『진대방전』 1책, 경판 『숙향전』 1책, 완판 『초한전』 3종 3책 등이 있다. 방각본 소설은, 경판은 한남서림(翰南書林), 완판은 서계서포(西溪書鋪)의 판권지가 부착된 것이 많다. 따라서 대부분 1910~20년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3.1.3 세책본(貰冊本) 소설

하동호 소장 세책본 소설은 필사본 세책과 구활자본 세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구활자본 고소설은 대부분 대본점에서 대여해주었던 것들을 수집한 것이다. 필사본 세책은 『고담낭전』 1책, 『한후룡전』 1책(권1. 낙질)이 있다. 『고담낭전』은 서울 중구에 있었던 산림동 세책점에서, 『한후룡전』은 향목동 세책점에서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던 것이다. 두 작품이 세책본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동호 소장 자료가 새로 확인됨으로써 세책점 간의 관계, 세책본 사이의 계열 문제 등을 재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 14> 현씨양웅쌍린기



<사진 15> 한후룡전

3.1.4 중국/번역 고소설

기증본 중에는 중국소설을 번각하거나 이를 필사한 한문으로 된 것과 중국소설을 번역하거나 번안한 것이 있다. 여기에는 목판본이나 필사본이 모두 들어있는데, 『삼국지』는 한문 목판본 1종 1책이 있고, 한글필사본은 4종 21책이 있다. 그리고 『서상기』는 한글 필사본과 한문 필사본이 각각 2책, 『서한연의(초한전 합철)』는 한글필사본 1책, 『동한연의』는 한글필사본 1책, 『수호전』은 한글 필사본 1책, 『금고기관』은 한글필사본 1책이 있다. 한문 목판본 『전등신화구해』(2권 2책)는 4종 8책이 있고, 한문 필사본도 3종 3책이 있다.

3.1.5 구활자본/신작 고소설

하동호 교수가 수집해 놓은 고소설 중에는 고소설이지만 구활자본으로 간행되면서 개작되었거나 신작 구조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옥중화』 1책, 『강상련』 1책, 『삼쇄정』 1책, 『십생구사』 2권 2책, 『시골여자 설은 사정』 1책, 『보심록』 1책, 『백두옹서생기』 1책, 『신소설』 1책 등이다.

이상에서 내용이나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았는데, 표기 문자에 따라 한문과 한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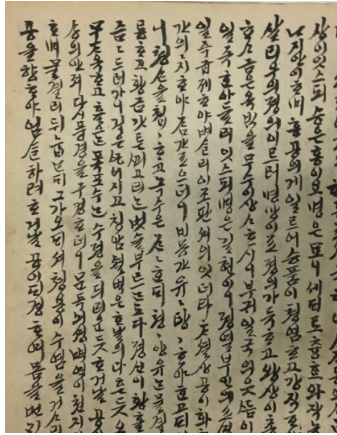
한문소설은 필사본과 목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한문으로 필사된 것은 『사씨남정기』는 3종 3책, 『숙향전』 2종 2책, 『창선감의록』 3종 3책, 『정향전』 1책, 『금산사몽유록』 1책, 『낙동야설』 1책, 『홍백화전』 1책, 『주생전』 1책, 『구운몽』 2종 2책, 『유충렬전(유충렬고담)』 1책, 『구운몽』 2책, 『위생전』 1책이 있고, 목판본은 모두 『구운몽』으로 2종 4책이 있다.

② 한글소설(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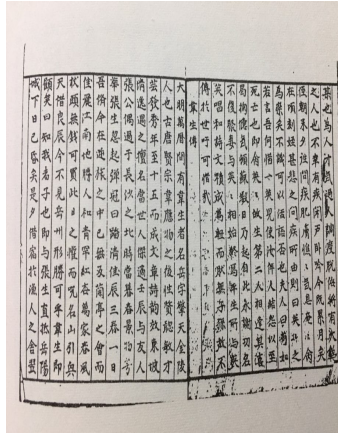
하동호 교수가 수집했던 고소설은 대부분 한글 필사본이다. 『강릉추월전』 3종 3책, 『계황비보은록』 1책, 『곽자의전』 1책, 『곽해룡전』 1책, 『광문자전』 1책, 『괴똥전』 1책, 『구운몽』 3종 3책, 『규증행실록』 1책, 『김용귀전』 1종 2책, 『김원전』 1책, 『김진옥전』 3종 3책, 『남정팔난기』 2책, 『내정연의』 1책, 『담환기봉』 1책, 『두껍전』 2종 2책, 『박씨전』 6종 6책, 『박태보전』 2종 2책, 『백학선전』 2종 2책, 『별춘향가』 1책, 『사씨남정기』 4종 4책, 『사씨전』 1책, 『삼학사전』 1책, 『석화룡전』 1책, 『설낭자충효록』 1책, 『소대성전』 3종 3책, 『소약란직금도』 1책, 『수궁가』 1책, 『수매침심록』 1책, 『숙녀지기』 1책, 『숙영낭자전』 1책, 『숙향전』 1책, 『심부인전』 1책, 『심청전』 2종 2책, 『양산백전』 1책, 『어룡전』 3종 3책, 『옥련몽』 3종 6책, 『옥루몽』 2종 2책, 『월봉기』 2종 2책, 『유백연전』 1책, 『유자사전』 1책, 『유충렬전』 8종 9책, 『유염기』 1책, 『이대봉전』 2권 2책, 『이춘풍전(추월춘풍전)』 1책, 『이태경전』 1책, 『이해룡전』 1책, 『인향전』 1책, 『임진록/조선임진록』 2종 2책, 『장국진전』 1책, 『장끼전』 1책, 『장백전』 1책, 『장익성전』 2종 2책, 『장풍운전』 3종 3책, 『정백화전』 1책, 『정비전/정태비전』 3종 3책, 『정성모전』 1책, 『정수경전』 2종 2책, 『정을선전』 1책, 『정진사전』 1책, 『정해경전』 1책, 『정현무전』 1책, 『조생원전』 1책, 『조웅전』 15종 15책, 『진대방전』 3종 3책, 『창선감의록』 4종 4책, 『춘향전』 4종 4책, 『토끼전』 1책, 『항탁전』 1책, 『홍길동전』 2종 2책, 『홍백화전』 1책, 『홍연전』 1책, 『화용도』 1책, 『황운전/황운설연전』 2종 2책, 『황월선전』 2종 2책, 『효열록』 1책 등이다.

이상에서 하동호 교수가 수집했던 300여 종의 고소설을 분류해 보았다. 하동호 교수는 고소설을 상당히 다채롭게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수집한 고소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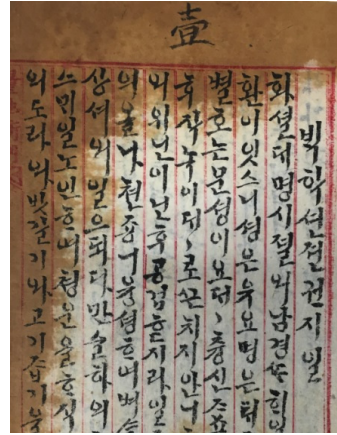
첫째, 한글 필사본의 경우, 필사 시기가 대부분 융희(隆熙) 연간이나 대정(大正) 연간이다. 필사용지는 <사진 18>처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빨간 패선이 그어져 있는 공문서나 이미 인쇄된 종이에 소설을 필사했다.



<사진 16> 홍길동전



<사진 17> 위생전



<사진 18> 필사 용지의 예

한글 필사본의 필사기를 보면 필사 장소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자료가 충청도 지역에서 필사된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충청도 청원군, 공주군, 부여군, 대전군 등이다. 서울, 대구 등에서 필사된 것들이 있으나 전체 수량을 보면 충청도 지역에서 필사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방각본 소설의 경우, 대부분 경관이나 완관 방각본 소설이며, 안성판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모두 1910~20년대 방각본 소설이 마지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었던 시기의 자료들이다.

셋째, 세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인공 담낭이 태수와 설전(舌戰)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고담낭전』, 장애를 지닌 두 주인공이 만나 서로 힘이 되어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한후룡전』이 두 종이다. 두 소설은 이미 세책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작품이다. 하동호 소장본을 기존에 확인된 이본과 비교해보면, 표기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세책점에서 빌려주던 텍스트는 내용이 고정되어 유통되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필사한 신소설과 신작 고소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한말 서양의 신식 인쇄기술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대량의 서적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대부터 신소설, 구활자본 고소설에도 적용이 되어, 상당수의 고소설이 활판본으로 출판되었다. 당대 독자들은 대부분 출판사에서 간행된 인쇄물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과거 전통 방식의 필사에 의존하여 고소설을 읽었다. 하동호 소장본 중에서 『옥중화』, 『강상련』, 『삼쾌정』, 『십생구사』 등은 1910년대 이후에도 필사문화(筆寫文化)가 여전히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이 출간된 신소설/신작 고소설을 누군가에게 빌려다가 다시 필사해서 읽었다는 엄연한 문학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하동호 교수 소장본만의 독특한 서지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하동호 소장본의 표지는 개장(改裝)이 되었다. 원 책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구입해서 소장자가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본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개장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고소설 대부분은 이처럼 소장자가 직접 표지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서지

사항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3.2 하동호 소장 고소설의 가치

하동호 교수가 수집한 고소설은 대략 300여 종이다. 이 자료들은 이본으로서 각 작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희귀본 내지 유일본이다.

하동호 교수는 자신이 갖고 있던 고소설의 희귀본의 일부를 '1983년에 고서동우회와 MBC 문화방송'이 공동 개최했던 '한국소설 1000년 전시'에 출품한 적이 있다. 이 때 안춘근, 여승구, 신영길, 박영돈, 하동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던 희귀본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하동호 교수가 소개했던 것은 한문소설 『유충렬 고담』 1종, 한글소설 『계황비 보은록』, 『심부인전』, 『조선 임진록』, 『국조고사』, 『김용귀전』, 『내정연의』, 『금고기관』 등 7종이다.⁹⁾ 이 자료들은 전시에만 잠시 비춰졌을 뿐 아직 학계에 전모가 소개되지 않은 희귀본 내지 유일본이다. 이 중에서 먼저 검토해 볼 것은 한문소설 『유충렬 고담』과 한글소설 『계황비 보은록』 두 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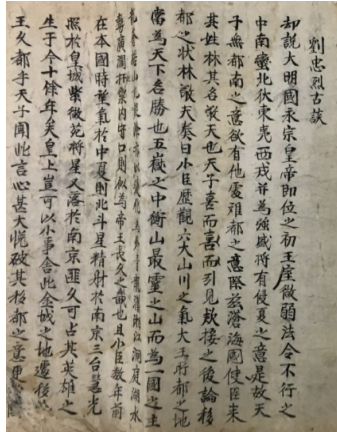
3.2.1 한문본 『유충렬 고담』

『유충렬 고담』은 한문 필사본이다. 상하(上下) 2권 1책으로 전체 장수는 36장(상권 21장/하권 15장)이다. 권수제는 '劉忠烈古談', '劉忠烈傳卷之下'로 되어 있고, 본문은 매면 13행, 행 당 22-24자 내외로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책이 언제, 누구에 의해 필사되었는가를 알려줄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다. 다만 내용으로 그 필사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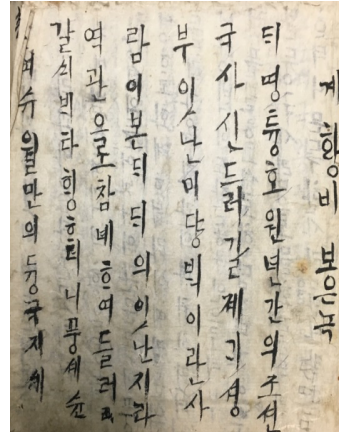
『유충렬 고담』은 『유충렬전』과 동계의 작품이다. 『유충렬전』은 영웅소설을 대표하는 고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 소설은 세책본이나 방각본, 구활자본과 같은 상업출판물이 있고, 필사본은 100여 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본 중에서 한문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자료의 핵심은 국문본 『유충렬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문본 『유충렬 고담』은 필사자가 완판 방각본 『유충렬전』을 가져다가 본문을 한자(漢字)로 옮겨 필사한 것이다. 다만 일부 내용은 부연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국문본 소설을 가져다가 다시 한문본으로 만든 사례는 『홍길동전』과 『소대성전』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문학적 사실에 추가해야 할 것이 바로 하동호 소장본 『유충렬 고담』이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로 전환되는 현상, 그 특징과 양상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다.

9) 필사본 『황금세계』를 비롯한 몇 책도 하동호 소장본이다. 이 책은 고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사진 19> 『유충렬 고담』의 첫 면



<사진 20> 『계황비 보은록』의 첫 면

3.2.2 한글소설 『계황비 보은록』

『계황비 보은록』은 한글 필사본이다. 단권으로 전체 장수는 48장이다. 권수제는 ‘계황비 보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매면 8-12행, 행 당 10-24자 내외로 불규칙하게 필사되어 있다. 본문을 보면 필체가 다른 곳이 있다. 이것을 보면 2~3명이 돌려가며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 또한 언제, 누구에 의해 필사되었는가를 알려줄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작품 역시 작품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계황비 보은록』은 『이장백전』과 동계의 작품이다.¹⁰⁾ 『이장백전』은 역관 홍순언(洪純彦)의 의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주인공과 내용의 일부를 변형해서 만든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본은 일본 천리대학 소장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아단문고 소장본, 정명기 소장본, 정경주 소장본까지 5종이 있고 모두 한문본이다.

하동호 소장 『계황비 보은록』은 현재까지 확인된 이본 중에서 유일한 한글본이다. 기존에 확인된 한문본과 『계황비 보은록』을 서로 대조해보면 『계황비 보은록』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이본은 한문본의 번역본으로, 한문본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축약 번역했다. 재미있는 것은 하동호 소장본을 보면 중간에 필사과정에서 오류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 오류는 대부분 저본을 보고 베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글자가 반복되거나 내용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한 『계황비 보은록』을 토대로 선행 한글본 이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계황비 보은록』을 통해서 이 소설이 번역된 양상, 홍순언 일화와의 변형 과정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다.

10)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서울: 보고사, 1996), 62-63.

4. 마무리와 과제

지금까지 하동호 교수 기증 자료 중에서 고문헌과 고전문학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의 대략적인 성격과 특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여러 전문 인력이 함께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부(經部)의 자료는 언해(諺解) 전공자, 사부(史部)의 자료는 역사 전공자와 장서인 관독 전문가, 자부(子部)와 집부(集部)의 자료는 한문학 전공자, 아울러 근대문학 자료 자문가가 함께 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본의 우수성, 자료의 희귀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근대서지학자로서의 하동호 교수의 재조명 작업이다. 그가 작성했던 논문은 환갑 기념 논문집에 소개되었지만 누락된 것이 많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근대서지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집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동호 교수가 기증한 고소설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하동호교수 재경오기념논총』. 서울: 탑출판사, 1990.
 유춘동.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75집(한국서지학회, 2018. 9). 179-192.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서울: 보고사, 1996.
 정진석. 『책 잡지 신문 자료의 수호자』. 서울: 소명출판, 2015.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1999.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Hee-woong. 1999. *List of Korean classical novels*. Seoul: Jipmoondang.
 Chung, Jinsuk. 2015. *Index compilers and book, magazine and newspaper collectors*. Seoul: Somyoung publish.
 Chung, Myungkee. 1996. *A Study on the Research on the Korea Yadam*. Seoul: Bogosa.
 Commemorative General Assembly Press. 1990. *Professor Ha Dong-ho, the 60th anniversary of one's birth of the Memorial Books*. Seoul: Top Publishing Company.
 Yoo, Choondong. 2018. “A Study on the Korean Old Novels’ Censored text and Legal Deposit: Status of Censored text & Legal Deposit, State of censorship, Characteristics & Meaning of Censored text.”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179-192.

[부록] 고(故) 하동호 교수 기증 자료 중 고소설 목록

연번	대표서명	표제	체제	크기	필사기 및 간행 사항
001	삼패정	없음	한글필사본 1책	26x17.5cm	庚申 十二月 二十二日
002	두겹전	두겹전	한글필사본 1책	30x18.5cm	기유 남월 십팔일
003	옥린몽	玉麟夢 卷之壹	한글활판본 1책	27x15.3cm	1913.11.11
004	옥린몽	玉麟夢 卷之貳	한글활판본 1책	27x15.3cm	1913.12.27
005	옥린몽	玉麟夢 卷之參	한글활판본 1책	27x15.3cm	1914.4.8
006	사씨전	사씨전(謝氏傳)	한글필사본 2권2책	30x17.3cm	■■閏四月念日忠淸南道 大田
007	옥루몽	懸吐 玉樓夢	한문활판본 3권3책	27x15.3cm	-
008	옥루몽	옥루몽 卷一	한글활판본 1책	27x15.3cm	1925.11.10
009	삼학사전	三學士傳單	한글필사본 1책	28x17cm	辛未丁月二十八日
010	삼국지	三國志	한글필사본 17책	28x17cm	-
011	강상련	강상련	한글필사본 1책	31x21cm	기스년 십일월 십삼일 新粧
012	사씨남정기	南征記 乾	한문필사본 1책	29.5x23cm	-
013	김원전	김원전	한글필사본 1책	34x18.5cm	무오 유월이십이일서
014	전등신화	剪燈新話	한문목판본 2권2책	23x16cm	-
015	소대성전	소대성전	한글필사본 1책	27.5x25cm	-
016	유충렬전	유충렬전	한글필사본 1책	30x19.5cm	계희 정월 십사일
017	화룡도	華龍道 下卷	한글필사본 1책	30x19cm	大正 元年
018	김진옥전	-	한글필사본 1책	29.5x20cm	-
019	십생구사	忠義小說 十生九死	한글필사본 1책	29.4x21cm	경북 달성군 공산면 고정리 책주 이순향
020	심청전	심청전 沈淸傳	한글필사본 1책	32.5x22cm	忠南 禮山 謄書 辛酉春三月
021	수매청심록	슈미청심록 권지상	한글필사본 1책	32x20cm	을사초칠일필서라
022	유충렬전	유충렬전	한글필사본 1책	32x21.5cm	-
023	옥련몽	玉蓮夢 卷之一 옥련몽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30x20cm	-
024	미상 ¹⁾	沈婦人傳	한글필사본 1책	32x23cm	갑자이월십일필서
025	인향전	닌향전	한글필사본 1책	33.5x21.5cm	-
026	창란호연록 ²⁾	倡善感義	한글필사본 1책	28x28.5cm	귀회연사월초스날 낙필
027	유충렬전	고덕소설 유충렬전	한글필사본 1책	32.8x21cm	-
028	서상기	西廂記	한문필사본 1책	23x14.8cm	-
029	효열록	효열록	한글필사본 1책	37x24cm	-
030	시골여자 설은 사정	시골여자 설은 사정	한글필사본 1책	25x29.5cm	-
031	황월선전	화월선전	한글필사본 1책	32x29cm	-
032	강릉추월전	江陵秋月傳	한글필사본 1책	30x22.8cm	-
033	이대봉전	니더봉전	한글필사본 1책	31x20.5cm	경술정월일 시등하다
034	곽자의전	곽주외전	한글필사본 1책	32.5x20cm	-
035	장끼전	쌍끼전	한글필사본 1책	19.5x18cm	-
036	괴똥전	괴똥전	한글필사본 1책	18.9x19.3cm	계축정월이십삼일시초
037	박태보전	박충신록	한글필사본 1책	29.5x20cm	-
038	전등신화	剪燈新話 第二	한문필사본 1책	30x24cm	甲辰十一月十日日絶筆耳
039	강릉추월전	江陵秋月	한글필사본 1책	33x20cm	-

11) 표제가 '심부인전'으로 되어 있어 '심청전' 계열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소설이다.

12) 표제가 '倡善感義'으로 되어 있어 '창선감의록' 계열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은 보면 '창란호연록'이다.

河東鎬 소장 고문헌 자료의 성격과 가치

연번	대표서명	표제	체제	크기	필사기 및 간행 사항
040	조웅전	도웅전이라	한글필사본 1책	31.7x19cm	-
041	주봉전	주봉전	한글필사본 1책	30x19cm	1985.11.10 改裝
042	장풍운전	張風雲傳	한글필사본 1책	28.5x18.8cm	1985.11.10 改裝
043	조웅전	趙雄傳	한글필사본 1책	26.5x18.5cm	-
044	이춘풍전	秋月春風傳	한글필사본 1책	27.5x19.7cm	大正四年乙卯 十二月二十二日
045	전등신화	剪燈新話 上下	한문필사본 1책	29.5x18.3cm	-
046	옥루몽	옥루몽	한글활판본 3책	21x14.5cm	1925.11.10
047	옥환기봉	옥환기봉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32x18cm	-
048	홍길동전	新小說	한글필사본 1책	22.3x21cm	戊午正月十八日
049	수궁가	水宮寃傳	국한문혼용필사본 1책	33.5x23cm	辛酉至月二十七日
050	월봉기	月鳳記傳單	국한문혼용필사본 1책	33.5x22.2cm	乙未至月二十日終畢
051	사씨남정기	南征記	한문필사본 1책	28.4x17.8cm	丁巳六月日
052	백학선전	-	한글필사본 1책	28.5x19cm	-
053	옥루몽	玉樓夢 六	한글필사본 1책	29x18cm	-
054	심청전	沈淸傳	한글필사본 1책	33x21cm	-
055	창선감의록	창선감의록 권지상	한글필사본 1책	33x21.8cm	-
056	춘향전	춘향전 권지상하	한글필사본 1책	36x22cm	癸丑丁月二十日古談乙傳書
057	숙향전	淑香傳梨花亭迎客記	한문필사본 1책	34.5x20cm	戊寅十二月
058	전등신화	剪燈新話	한문목판본 2권2책	23x16cm	-
059	어룡전	어룡전	한글필사본 1책	34x22.2cm	임즈음십일월십이일등서필
060	정향전	貞香傳	한문필사본 1책	23x18.5cm	-
061	금산사몽유록	金山寺夢遊錄	한문필사본 1책	23.5x18.5cm	-
062	삼국지	三國誌	한글필사본 8책	24x22.3cm	-
063	낙동야설	洛東野說	한문필사본 1책	22.5x20.8cm	-
064	조웅전	趙雄傳 乾	한글필사본 1책	27.8x17.7cm	乙未十月
065	보심록	고대소설 보심록	한글필사본 1책	31x20cm	-
066	삼국지	三國誌	한글필사본 1책	26.9x17.8cm	을스삼월의 조암니국춘등서
067	이태경전	-	한글필사본 1책	32.5x22.5cm	갑인 윤오월 초이일
068	황월선전	-	한글필사본 1책	29.5x26.5cm	-
069	십생구사	십생구사	한글필사본 1책	31x28.5cm	-
070	창선감의록	倡善感義錄	한글필사본 1책	33.5x21.5cm	-
071	어룡전	魚龍傳	한글필사본 1책	33.5x22cm	戊申年正月二十八日■■■謄書
072	홍백화전	紅白花傳	한문필사본 1책	30x21.7cm	-
073	조웅전	趙雄傳 卷之二	한글필사본 1책	30x21.7cm	계미정월초열흘날필 호도다
074	임화정연	임화정연	한글활판본 1책	27x15.3cm	1928.1.20
075	장익성전	張翼星傳	한글필사본 1책	30x18.4cm	-
076	김진옥전	김진옥전지일	한글필사본 1책	27.7x18.7cm	디한광무팔연춘습월신소저작성
077	진대방전	진대방전	한글필사본 1책	34x28cm	을묘정월이십이일 옥계경사
078	조생원전	趙生員傳	한글필사본 1책	36x23.5cm	-
079	조웅전	도웅전권지상하	한글필사본 1책	32x25cm	정유원월십이일시등
080	구운몽	구운몽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27.3x17.4cm	-
081	구운몽	九雲夢	한문방각본 2권2책	28.2x18.5cm	-
082	현시양옹쌍린기	현시양옹쌍린기	한글필사본 3권3책	33.7x24cm/32.5x23cm/31.3x20.4cm	-
083	어룡전	魚龍傳	한글필사본 1책	28.5x18.5cm	-
084	구운몽	九雲夢 卷之初	한글필사본 1책	27.7x17.7cm	-
085	사씨남정기	謝氏南征記	한글필사본 1책	28x19.2cm	-
086	숙영낭자전	숙영낭자전	한글필사본 1책	26.7x18.2cm	임진니월초습일필수망중

연번	대표서명	표제	체제	크기	필사기 및 간행 사항
087	창선감의록	倡善感義錄	한문필사본 2권1책	27.8x18.3cm	-
088	박씨전	박씨전	한글필사본 1책	28x18cm	-
089	박씨전	박씨전	한글필사본 1책	27.5x19.2cm	-
090	소대성전	大成傳	한글완판방각본 1책	25.5x17.4cm	-
091	구운몽	九雲夢 卷之參	한글필사본 1책	32.3x20cm	세제경술이월일
092	주생전	-	한문필사본 1책	30.8x16.5cm	-
093	황운전	황운설언전 卷之上	한글필사본 1책	28.5x19.3cm	단기사이팔유연일월필서
094	황운전	黃雲薛淵傳 卷之下	한글필사본 1책	29.5x19.3cm	-
095	박씨전	朴氏傳	한글필사본 1책	31.5x20.2cm	경오사월등서하라
096	고담낭전	고담낭전	세책필사본 1책	23.2x20cm	을미 원월 이십오일 살임동 필서라
097	서한연의/조한전	-	한글필사본 1책	24.3x20.5cm	무신 이월 망일 맞치노라 호동 필서
098	월봉기	월봉기전 하	한글필사본 1책	29.8x15cm	-
099	백학선전	白鶴傳	한글필사본 1책	25.8x18.7cm	-
100	구운몽	九雲夢 天地人	한문방각본 6권 3책	27.3x18.2cm	崇禎後三度癸亥
101	구운몽	九雲夢 傳	한문필사본 1책	25.5x19.3cm	-
102	현시양옹쌍린기	현시양옹쌍인괴연	한글필사본 1책	27.5x17cm	-
103	정비전	鄭太妃傳	한글필사본 1책	27.5x17.2cm	세제계축필일춘 대대궁항신간 등기자 이보원
104	항탁전	항탁전	한글필사본 1책	26.4x18.7cm	-
105	백두옹서생기	백두옹서생기	한글필사본 1책	26x17.5cm	임신 맹춘년
106	유충렬전	유충렬전하	한글필사본 1책	25.4x16cm	신희월일초팔일
107	육염기	육염기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26.5x18.3cm	경술원월염오일
108	전등신화 ¹³⁾	雜書	한문필사본 1책	26.3x17cm	-
109	장학사전	장학사전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26x18cm	-
110	정현무전	정현무전	한글필사본 1책	25x17.4cm	-
111	전등신화	剪燈新話	한문방각본 1책	26.5x19.5cm	-
112	수호지	신교수호지	한글활판본 4권4책	21x14.5cm	1913
113	홍연전	홍연전 권지단나라	한글필사본 1책	25.3x24cm	-
114	구운몽	九雲夢	한문필사본 1책	25.3x22.3cm	-
115	조웅전	조웅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28.3x17cm	병오년 이월초 삼일 중
116	춘향전	없음	한글필사본 1책	28.5x19.4cm	세제계묘남월초경의등서라
117	창란호연록	창란호연록	한글필사본 2권2책	31.3x19cm	-
118	옥중화	옥중화 권지중	한글필사본 1책	25.8x17.4cm	大正3年甲寅正月
119	삼국지	四大奇書 第一	한문방각본 1책	26.3x18cm	-
120	삼국지	삼국지	한글경판방각본 1책	25.5x18.6cm	美洞新板
121	조웅전	조웅전	한글완판방각본 1책	25.4x18.5cm	-
122	금방울전	금방울전	한글경판방각본 1책	23x18.5cm	翰南書林
123	삼국지	三國誌	한글완판방각본 1책	26.3x18.4cm	西溪書鋪
124	삼국지	삼국지	한글경판방각본 1책	25.5x18.6cm	美洞新板
125	국조고사	국조고스 권지이	한글필사본 1책	30x18.2cm	-
126	황운전	황운전	한글경판방각본 1책	26x18cm	宋洞新刊
127	소대성전	소대성전	한글완판방각본 1책	25.5x19cm	多佳書鋪
128	유충렬전	유충렬전	한글완판방각본 1책	27x18.5cm	-
129	진대방전	진대방전	한글경판방각본 1책	24.3x19.5cm	-
130	조웅전	조웅전 상이라	한글필사본 1책	31.4x19.5cm	丙午十二月初七日末
131	소약란직금도	소약란직금	한글필사본 1책	29.3x15.4cm	-
132	홍백화전	홍백화 권지이	한글필사본 1책	28.7x18.5cm	경조 이월십팔일 파주읍 남부니

13) 표제가 '잡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등신화'이다.

河東鎬 소장 고문헌 자료의 성격과 가치

연번	대표서명	표제	제제	크기	필사기 및 간행 사항
133	숙향전	숙향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28x19.5cm	을스 납월일 駕中
134	숙향전	숙향전 권지상	한글경판방각본 1책	26.5x18.4cm	-
135	조웅전	-	한글필사본 1책	31x19cm	-
136	소대성전	소대성전	한글필사본 1책	31x19.5cm	-
137	유충렬전	柳忠悅傳	한글필사본 1책	32x20.5cm	경술 칠월 초시빌 아모 필서
138	초한전	초한전 권지상이라	한글완판방각본 1책	27x18.5cm	己酉季春完山開刊
139	전등신화	剪燈新話	한문목판본 2권2책	27x18.5cm	-
140	두껍전	두껍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20x15cm	대정 십이년 십일
141	적성의전	덕성의던	한글필사본 1책	23x18.4cm	壬辰閏月畢
142	한후룡전	한후룡전	세책필사본 1책	24x17.5cm	향수동
143	창선감의록	昌善感義錄	한문필사본 1책	28x19.7cm	光緒十六年 十一月初一日
144	박씨전	박씨전	한글필사본 1책	30x20cm	임술원월이십오일등서라
145	이대봉전	이대봉전	한글필사본 1책	25x16.8cm	갑오팔월이십일필선
146	조웅전	묘웅전	한글필사본 1책	23x17.5cm	庚戌正月十七日
147	조웅전	묘웅전	한글완판방각본 1책	26x18.5cm	-
148	진대방전	진대방전이라	한글필사본 1책	28x19.7cm	丁巳十一
149	수호전	-	한글필사본 1책	28x19.4cm	-
150	초한전	-	한글완판방각본 1책	25.5x18cm	-
151	유충렬전	-	한글필사본 1책	24x21cm	-
152	설낭자전	설낭자흥효록	한글필사본 1책	27.5x19cm	-
153	유자사전	유자사전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32x21cm	-
154	양산백전	양산백전	한글필사본 1책	29x17.2cm	-
155	유백연전	유백연전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29x19.8cm	-
156	소대성전	蘇大成傳 上下卷	한글필사본 1책	31.7x21.5cm	閨裡閒話 丙子正月 昭和十四年己卯三月日加衣
157	장백전	장백전 권지단나라	한글필사본 1책	32.5x16cm	을히 팔월 초이일 성현필서
158	정비전	정비전이라	한글필사본 1책	32x21cm	姐己傳 大正 二月 十六日 加衣
159	장풍운전	장풍운전	한글필사본 1책	32.5x20.5cm	丙辰年
160	정수정전	정수정전	한글필사본 1책	28.8x19.5cm	과곡
161	규중행실록	諺文閨中行實錄	한글필사본 1책	30x21.5cm	乙酉臘月布
162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	한글필사본 1책	31x19cm	계축승월초칠일등서호노라
163	유충렬전	劉忠烈傳 乾坤	한글필사본 2권2책	31.6x21cm	-
164	유충렬전	劉忠烈古談	한문필사본 1책	30.6x27.5cm	-
165	토끼전	토끼전	한글필사본 1책	29x18.5cm	明治四十五年年度
166	남정팔난기	南征八難記	한글필사본 2권2책	30x20cm	-
167	장국진전	장국진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30x19cm	乙巳十一月
168	춘향전	춘향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31.6x21cm	庚子至月二十一日終筆
169	곽자의전	곽자의전 권지초	한글필사본 1책	31.5x19.5cm	-
170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 권지상	한글필사본 1책	31x20cm	-
171	석화룡전	石華龍傳	한글필사본 1책	29.4x20cm	-
172	숙녀지기	숙녀지기 권지일	한글필사본 1책	33.6x21.8cm	-
173	현씨양옹쌍린기	현씨양옹쌍린기	한글필사본 1책	33.2x20.5cm	-
174	정성모전	정성모전 단	한글필사본 1책	31.6x21.6cm	-
175	장익성전	張翼成傳	한글필사본 1책	31.7x21cm	-
176	쌍봉기연록	쌍봉기연록	한글필사본 1책	26.5x17cm	융희이년이월십이일야
177	유충렬전	劉忠烈傳	한글완판방각본 1책	27.1x18.7cm	-
178	장익성전	장익성전 권지상	한글필사본 1책	26x17cm	-
179	초한전	楚漢傳	한글완판방각본 1책	25.5x18.3cm	丁未孟夏完南龜石里新刊

연번	대표서명	표제	체제	크기	필사기 및 간행 사항
180	정을선전	-	한글필사본 1책	23.5x21cm	을축연정월십사일의다씨이라
181	임진록	朝鮮壬辰錄	한글필사본 1책	23x21cm	-
182	진대방전/삼국지	진대방전/삼국지	한글필사본 1책	25x21cm	음정축춘三月二十五日の 필서
183	계황비보은록	계황비보은록	한글필사본 1책	22x19cm	-
184	숙향전	淑娘傳	한문필사본 1책	27.5x22cm	歲在壬戌臘月念八日畢
185	정진사전	-	한글필사본 1책	23.4x21cm	-
186	삼국지	삼국지 第三卷	한글필사본 1책	22x20.5cm	丁酉丁月
187	조웅전	도웅전 권지삼	한글필사본 1책	28x18.5cm	병오이월십육일시필
188	효열록	니경연의	한글필사본 1책	19.5x28cm	-
189	금고기관	금고기관	한글필사본 1책	20x28.2cm	-
190	별춘향가	별춘향가	한글필사본 1책	18.7x30.5cm	-
191	창관효열록	창관효열록	한글필사본 1책	19.5x31.4cm	-
192	옥루몽	옥루몽	한글필사본 1책	18.5x27.5cm	-
193	김용귀전	金龍貴傳 乾坤	한글필사본 2권2책	21.4x33.7cm	-
194	정수정전	정수정전	한글필사본 1책	22x33.2cm	-
195	이해룡전	이해룡전	한글필사본 1책	21x30cm	-
196	정해경전	정해경전	한글필사본 1책	20.4x31.8cm	-
197	주봉전	주봉전	한글필사본 1책	21.8x33cm	-
198	정태비전	정태비전	한글필사본 1책	21.5x33.5cm	-
199	창선감의록	昌善感義錄	한문필사본 2권2책	20.5x21.3cm	-
200	박씨전	-	한글필사본 1책	21x21.5cm	-
201	옥련몽	옥련몽	한글필사본 1책	17x27.5cm	-
202	박씨전	-	한글필사본 1책	20x21cm	을미연이월뫼충등서라
203	조웅전	-	한글필사본 1책	21x33.5cm	계축/기유
204	홍길동전	홍길동전 권지단	한글필사본 1책	22x34.5cm	-
205	춘향전	춘향전	한글필사본 2권 1책	23x33.5cm	을축연정월이십스일이라
206	사씨남정기	-	한글필사본 1책	22.5x33cm	신헌 구월초 구일
207	삼국지	삼국지	한글필사본 1책	22x33.5cm	明治45年壬子
208	정백화전	정백화전	한글필사본 1책	21x29.7cm	-
209	곽해룡전	-	한글필사본 1책	18.5x28.2cm	-
210	주봉전	-	한글필사본 1책	21.3x23.7cm	-
211	화씨충효록	화씨충효록	한글필사본 1책	20.3x31cm	-
212	조웅전	-	한글필사본 1책	20x29.2cm	기유십이월일 맞치다
213	임진록	임진록	한글필사본 1책	19.5x29cm	-
214	동한연의	동한연의	한글필사본 1책	18x31cm	정축옥월일
215	강릉추월전	강릉추월전	한글필사본 1책	29x24cm	丙辰正月日
216	김진옥전	김진옥전	한글필사본 1책	21.2x32cm	甲子正月
217	담환기봉	담환기봉	한글필사본 1책	21.2x32cm	-
218	유충렬전	-	한글필사본 1책	19.8x32.5cm	-
219	광문자전	광문자전	한글필사본 1책	22x34cm	해주 최씨 9세 때
220	남정기	南征記 卷之一	한문필사본 1책	24.5x25.7cm	戊寅二月
221	박태보전	박태보	한글필사본 1책	20.5x32cm	-
222	창선감의록	창선감의록	한글필사본 1책	21x23.2cm	-
223	창선감의록	倡善感義錄	한문필사본 1책	23.5x27cm	-